

〈특집: 미국사 연구 지평의 확대〉

아시아인 이주와 동화가능성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로버트 팍과 “인종관계조사”를 중심으로-

권은혜*

〈목차〉

- I. 들어가며
- II. “동양인”과 “미국인” 사이의 인종 관계
- III. 아시아인의 사회적 동화 수단으로서의 인종 간 결혼
- IV. 나가며: 로버트 팍과 인종관계조사가 남긴 유산

[국문초록]

본고는 20세기 초 미국의 시카고 사회학과를 형성했던 사회학자 로버트 팍 (Robert Park)과 팍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했던 1924-27년의 인종관계조사가 아시아인에 관한 사회학적 관찰방법을 구성하는 방식을 살펴본다. 팍은 “인종 관계의 순환(race-relations cycle)” 이론을 “동양인”과 “미국인”의 인종 관계에 적용해 아시아계 이민자는 미국의 흑인과는 비 백인이라는 인종적 특징을, 유럽계 이민자와는 이민자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한다고 상정했다. 팍은 아시아인과 백인 사이의 인종 간 결혼을 아시아인의 특징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삼았고 “인종관계조사”를 진행할 때 팍은 아시아인과 백인 사이의 결혼 사례에 큰 관심을 보였다. 두 인종 사이의 결혼이 사회통념과 법으로 금지되던 시절에 팍은 인종 간 결혼을

* 서강대 사학과 강사

아시아인의 동화 및 인종 갈등의 해결 수단이라고 상상했다.

□ 주제어

로버트 팍, 시카고 사회학과, 인종관계조사, 아시아 이민, 인종 간 결혼

I. 들어가며

시카고 사회학자인 로버트 팍(Robert Park)은 20세기 초 미국의 도시화 현상과 유럽인 이민현상에 기반해 이민 수용국에서 이민자가 사회적으로 동화하는 과정을 다룬 인종관계의 순환이론(race-relations cycle)을 고안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¹⁾ 1924년부터 1927년까지 팍은 뉴욕에 기반한 사회종교연구소(The Institute of Social and Religious Research)가 후원하는 “인종관계조사(Survey of Race Relations)”의 연구 책임자로 선임된다. “인종관계조사”는 미국과 캐나다의 태평양 연안 지역에 거주하던 중국인, 일본인과 기타 비 유럽인들에 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자료들을 수집하고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연구 프로젝트에는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 활동하던 대학 교수, 대학원생, 선교사, 이민 이슈에 관심을 가진 조직 및 기관들이 직간접적으로 참

1) 팍의 인종관계의 순환 이론은 유럽인 이민자의 미국 사회 적응과정에 대한 관찰에서 나온 이론이다. Robert E. Park, *The Immigrant Press and Its Control*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21); Robert E. Park and Herbert, A. Miller, *Old World Traits Transplanted* (New York: Haper and Brothers, 1921).

여했다. 본래 짝은 조사를 마친 후에 조사 결과를 종합하는 저서를 출간할 계획이었으나 1944년에 사망하기 전까지 그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인종관계조사는 총 919개 파일과 38개의 박스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남겼고 1920년대 초 아시아계 이주민들의 생애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후대 역사가들에게 제공했다.²⁾

“인종관계조사”의 역사적 배경은 1920년대 초반에 절정에 이르렀던 반(反) 아시아 운동, 그리고 1924년 이민법으로 도입된 아시아계 이민 제한 정책이었다. 연구에 참여했던 학자들과 선교사들은 반 아시아운동을 인종편견에 근거한 정치적 선전이라고 비판하던 개혁적 지식인들이기도 했다. 인종관계조사의 초점은 1920년대 태평양 연안에 거주하는 “동양인”과 “미국인”의 관계, 즉 아시아인 이주자와 백인들 사이의 관계였다. “동양인”과 “미국인” 사이의 “인종관계”가 최악이던 시절에 인종관계조사는 태평양 연안 미국과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거주하던 중국인과 일본인 이주자들, 그리고 이들을 접촉한 적이 있는 백인들에 관한 “사실들”을 제공하려 했다. 인종관계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표한 논문들에서 짝은 아시아인의 이주와 미국인과의 접촉과정에서 인지되는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사유했다.

본고는 짝이 작성한 인종관계조사의 중간보고 및 관련 학술 논문을 참고하여 짝이 아시아인에 관한 사회학적 관찰방법을 구성하는 방식을 살펴본다. 본문의 첫 번째 절에서는 짝이 “인종 관계의 순환” 이론을 “동양인”과 “미국인”의 인종 관계에 적용하는 방식을 살펴본다. 1924년 이전에 짝은 미국 남부에서의 “흑인 문제(the Negro Problem)” 연구, 그리고

2) 인종관계조사가 남긴 방대한 자료는 현재 스탠포드대학 후버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온라인 아카이브로도 구축되었다. Survey of Race Relations, 1924-1927, Hoover Institution Archives, Stanford University, <https://searchworks.stanford.edu/view/4088089> [2018년 10월 20일 검색].

유럽계 이민자들을 모델로 이들의 미국사회 정착과정을 다룬 “인종 관계의 순환” 이론을 고안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 도시에서 유럽 이민자들은 접촉, 갈등, 수용, 그리고 동화라는 4단계를 거친다. 팍의 인종 관계 이론에서 아시아계 이민자는 미국의 흑인과는 비 백인이라는 인종적 특징을, 유럽계 이민자와는 이민자로서의 정체성을 각각 공유하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다. 본론의 두 번째 절에서는 팍이 아시아인과 백인 사이의 인종 간 결혼을 아시아인의 특징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삼은 이유와 그가 도달한 결론을 살펴볼 것이다. “인종관계조사”를 진행할 때 팍은 아시아인과 백인 사이의 결혼 사례에 큰 관심을 보였다. 두 인종 사이의 결혼이 사회통념과 법으로 금지되던 시절에 팍은 인종 간 결혼을 아시아인의 동화 및 인종 갈등의 해결 수단이라고 상상했다. 결론에서는 인종관계조사 이후 팍이 남긴 저술 중에서 특히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를 다룬 글을 중심으로 아시아인의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차이에 관한 팍의 연구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사회의 아시아인 인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³⁾

팍과 인종관계조사에 관해 본격적인 평가를 시도한 역사가는 헨리 유(Henry Yu)이다. 유에 따르면, “동양인 문제(the Oriental Problem)”에 접근함에 있어 팍을 위시한 시카고 사회학자들은 “유럽이민자들에 관한 이들의 이론과 ‘흑인 문제’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의도적으로 연결”했다. “동양인(The Oriental)은 [유럽인] 이민과 [흑인] 인종이라는 두 다른 주제들을 이어주는 다리를 표상”했다. 유는 인종관계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카고 사회학파가 제도적 지식으로서 후대 사회학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팍과 시카고 사회학파는 백인 미국 지식인

3) 팍의 학술논문은 그의 사후에 출간된 그의 논문집을 참고했다. Robert Ezra Park, *Race and Culture* (Glencoe, Ill.: The Free Press, 1950).

의 관점, 즉 아시아인에 대한 지식이 없는 외부자의 관점에서 아시아계 이민자에 대한 지식과 사실들을 축적하려 했다. 이들은 “동양인”에 대한 탐구를 학문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오늘날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전형적 지식을 고착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다.⁴⁾

유의 지적처럼 팍은 아시아인에 관한 고정된 시각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지만 팍이 아시아인에 대한 전형적 지식의 창출을 처음부터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종관계조사를 진행하는 과정과 그 이후에 팍이 남긴 글을 보면, 아시아인에 대한 백인의 편견과 두 집단의 인종 갈등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처방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그의 목표는 아니었다. 여기서 팍이 이민자의 미국화에 관한 “멜팅 팻” 이론을 만든 철학자 호레이스 켈렌과 함께 20세기 초 미국의 문화적 다원주의의 계보를 형성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⁵⁾ 아시아인과 백인 사이의 인종 관계를 관찰함으로써 팍은 인종관계의 순환 이론, 그리고 인종과 문화의 혼합으로부터 발생하는 새로운 문명의 탄생에 관한 이론을 증명하고 싶어 했다. 팍은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의 원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백인과 다른 아시아인의 근본적 차이는 외형보다는 심성에 있다고 보았다. 아시아인의 외형적 차이는 바꿀 수 없는 것이지만 아시아인들이 세대를 거쳐 미국의 문화를 수용하고 백인 미국인들의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면 아시아인이 궁극적으로 미국사회에 동화할 수 있을 것이었다.

4) Henry Yu, *Thinking Orientals: Migration, Contact, and Exoticism in Modern Americ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p.8, 10.

5) Ellen D. Wu, *The Color of Success: Asian Americans and the Origins of the Model Minor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p.51.

II. ”동양인”과 ”미국인” 사이의 인종 관계

”동양인”과 백인 사이의 인종 갈등의 출처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짝은 이 갈등의 원인을 ”동양인”과 백인 사이의 가시적인 인종 차이 자체에서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의 관심사는 두 인종 집단의 차이가 인지되어 사회 갈등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었다. 당대의 많은 반 아시아 이민 세력들이 아시아인과 백인 사이의 생물학적이고 문화적 차이를 갈등의 직접적이고도 다른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당연한 원인으로 보았던 반면, 짝은 두 집단 사이의 차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형성—그는 이것의 예로 여론을 든다—속에서 인종 갈등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다.

태평양 연안의 ”동양인” 연구가 참조해야할 선행 연구로 짝은 1906년 아틀란타, 1917년 시카고의 흑백 인종폭동에 관한 연구들을 들었다. 1906년 아틀란타 폭동에 관한 레이 스탠나드 베이커(Ray Stannard Baker)의 연구는 ”기본적 감정의 폭발을 가능하게 했던 조건들이 무엇이었는지 발견”하려고 했다. 시카고 폭동에 관한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인종 갈등의 출처를 밝히고 모호한 자극이 여론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했다. 짝은 ”인종 갈등에는 생물학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종 갈등이 표현하고 자극하는 태도들”이라고 강조하며 어떤 면에서 ”인종관계조사는 그것이 무엇에 관한 것이던 간에 여론에 관한 연구”라고 지적했다. 아시아인에 관한 인종관계조사가 참조할 다른 선행 연구로 짝은 유럽 이주민의 미국화에 관한 연구도 들고 있고 유럽 이주민과 아시아 이주민의 미국 문화 적응정도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는 말하고 있지만 그가 생각하는 인종관계조사의 구체적이고 특별한 관심사는 다른 곳에 있었다.⁶⁾

인종관계조사에 참여하기로 확정된 해인 1923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팍은 인종관계조사가 특히 관심을 가지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일반화시킨다. “인종 유형과 생활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사회의 경쟁적 협력 속으로 들어올 때 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바로 그것이다. 아시아인 이주자의 경우가 바로 “[개인주의적이고 민주적인 미국 사회와 비교할 때] 인종 유형과 생활수준이 다른 사람들”이었다. 팍에 따르면, 태평양의 아시아계 이민자와 백인들 사이의 관계는 중서부 및 남부에서 흑인과 백인 사이의 관계와 유사한 양상으로 발전했다. 언어, 그리고 특히 피부색의 차이 때문에 흑인처럼 “동양인”은 “인종 제복(racial uniform)”을 입고 있고 이들만의 “인종 의식(race consciousness)”을 발전시키게 된다. “인종 의식은 인종 분리를 생산”하고 이로 인해 “마치 흑인처럼 황인은 그들이 속하고 싶은 집단으로부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분리된 인간”이 된다. 인종 분리 상황에서 황인과 흑인은 백인들처럼 각자의 장점을 인정받는 개인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종을 대표”하는 것으로 먼저 인식된다. “동양인과 서양인 사이의 경쟁이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되길 멈추고 비인격적인 인종 경쟁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팍은 인종 경쟁이 인종 갈등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인종 갈등이 양산하는 편견과 여론은 동양인의 고립을 강화”한다.⁷⁾

“인종 제복”이외에도 팍은 1926년의 글에서 “인종 유형(the racial type),” “인종적 특질(racial traits)”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흑인과 동양인이 “인종 제복”을 입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팍은 외형적 지표

6) Robert E. Park, “A Race Relations Survey: Suggestions for a Study of the Oriental Population of the Pacific Coast,” *Journal of Applied Sociology* Vol. VIII (March–April 1924): pp.195~196, Reprinted version, #13, Box 23, Survey of Race Relations.

7) Ibid, pp.196~197.

로 구별되는 인종적 차이나 타고난 인종의 특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팍이 말하는 인종적 차이의 개념은 당대 과학적 인종주의에서 말하는 생물학적 인종 결정론과는 다르다. 팍이 말하는 흑인과 아시아인의 인종적 차이란 백인과 이들을 구별하는 외형적 차이를 의미한다. 그는 “인종 유형”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한다. “왜 일반적인 미국인에게 흑인이나 중국인이 모두 다 똑같이 생긴 것처럼 보이는가? 그것은 개별적 인간이 인종 유형 뒤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인종 유형은 반드시 “물리적인 것은 아니”라고 팍은 강조하며 “복장, 태도, 몸짓, 얼굴의 특징적 표현상의 차이들로 인해 인종 유형들 사이의 물리적 차이는 더 강화된다”고 지적한다. 미국에 오래 거주하면서 동양인이 “정서와 태도 면에서 변화”하더라도 “물리적인 특질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인종 제복에 갇혀 있다”고 팍은 기술한다. 팍에 따르면, 인종분리와 인종갈등의 원인은 “인종의 물리적 특질” 때문이다. 즉, 아시아인의 외형적 특징에 대한 미국인의 불편함과 편견이 두 인종 사이의 갈등의 요소라는 것이다.⁸⁾

당대의 다른 백인 엘리트들이 아시아 이민에 대한 반대와 수용의 양극단을 형성했다면 사회학자 팍은 아시아인과 백인 미국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특정한 처방을 내리기보다는 두 집단 사이의 인종관계가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하는 데 더 관심을 가졌다. 이것은 아마도 인종관계조사를 후원한 사회종교연구소의 희망 사항은 아니었을 것이다. 사회종교연구소는 이 연구가 반 아시아 운동 진영의 주장을 반박하고 태평양 연안의 미국인들의 인종 인식을 바꾸는 데 기여할 “사실들”을 찾아내는데 주력하길 기대했다. 사회학자 팍에게 있어 인종관계조사의 목표는 특정한

8) Robert E. Park, "Behind Our Masks," *Survey Graphic* 56 (May 1926), pp.135~136, 138.

집단의 입장을 증명하는 데에 있지 않았다. 팍은 인종관계조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조사의 목적은 논점의 어느 한 편이 가진 의견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우호적인 정신 속에서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실들에 관한 공정한 조사는 격분을 누그러뜨리고 쓰라린 감정을 감소시키는 데는 도움이 된다.” 사실들과 이슈들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팍은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팍에게 더 중요했던 목표는 “정당들, 분파들의 의견과 강령 뒤로 가서 여론의 원천—개인들의 구체적 경험들, 개인적 정서와 사적인 느낌들—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인종 관계를 정치적 요소로 환원하려는 시도에 맞서 팍은 “인종관계조사의 관점에서 태평양의 상황은 정치의 문제라기 보다는…태도—집단적 태도—의 문제”라고 규정한다.⁹⁾

인종집단들의 태도에서 인종 관계의 원천을 찾으려는 팍의 입장은 인종관계조사를 미국 서부에 거주하는 아시아인들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프로젝트로 만들고 싶었던 그의 의지를 반영했다. 이런 그의 의지는 다음의 일화에서 잘 드러난다. 인종관계조사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는 아시아 이민자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그들의 생애사(life histories)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인종관계조사의 지역자문위원으로 캘리포니아 소재 대학의 사회학과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이 참여했다. 이들 대학생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팍과 함께 있었던 사회학자 에머리 바가더스(Emory Bogardus)는 “사실들”을 강조하는 학생들에게 팍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한다. “사회학은 사실에 관심이 없고 심지어 객관적 측면에서 사회적 사실들이라고 이해되는 것들에도 관심이 없다. 사회학은 소위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 일어나는 일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사회학의 관심사를 사실에 대한 사람들의 반

9) Robert E. Park, “Behind Our Masks,” *Survey Graphic* 56 (May 1926), p.139.

응이라고 정의한 후 팍은 아시아 이민자들을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일본인들은 미국인들에게 만족스럽게 받아들여졌던 경험이 있는가? ...니세이[미국에서 태어난 2세대 일본계 미국인]의 경험은 그들의 인생관을 어떻게 바꾸었는가...미국인들의 뿌리깊은 편견을 겪고 난 후 이들의 삶의 철학에는 어떤 일이 생겼는가?”¹⁰⁾

팍은 인종 관계에서 드러나는 정서적 측면의 역할에 관심을 가졌고 특정 인종 갈등에 “여론(public opinion)”이 작동하는 방식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싶어 했다. 태평양 연안의 백인들 사이에서 강한 반 일본인 정서를 확인한 후 바가더스에게 팍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인종관계조사가 시작될 때 태평양 연안의 인종 관계에서 두드러진 사실은 격앙된 여론이었다.” 버클리 대학의 길모어(J.W. Gilmore)도 팍에게 공감했다. 길모어는 “감정(sentiment)와 심적 요소(psychic factors)의 측면에서 볼 때 태평양 연안에서 동양인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길모어의 지적에 팍은 인종관계조사가 “연구 주제와 연관된 통계적이고 물리적인 사실들(physical facts)로부터 심적 측면들(psychic aspects)을 분리해 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¹¹⁾

1926년에 발표한 논문 “우리의 가면 뒤에서(Behind Our Masks)”에서 팍은 인종관계조사의 중간 연구 성과를 정리했다. 이 논문은 인종 관계에서 심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즉, 팍은 인종 간의 물리적이고 외형적 차이가 인종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문화가 인종 인식을 중요하게 형성한다고 확신했다. 팍의 관찰에 따르면,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의 두드러진 차이는 행동에 있어 동양 사람이 서양 사람보다 더 의식적이고 인습적이라는 점”이다. 팍의 다른 표현을 옮기자

10) Winifred Raushenbush, *Robert E. Park: Biography of a Sociologist*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1979), p.112.

11) Ibid., p.109.

면, “동양인은 우리[서양인]보다 좀 더 완전하게 가면(mask) 뒤에서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잘못 해석하는 것은 충분히 자연스럽다.” 즉, 짝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태도의 차이를 “동양인”과 “미국인” 사이의 인종 갈등이 가지는 주요 특징으로 파악했고 인종관계조사의 발견들을 그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했다.¹²⁾

하지만 짝의 요점은 동양인과 미국인의 접촉이 빈번해 질수록, 특히 동양인 이민자 2세대에 이르면 두 집단 사이의 거리감이 줄어들어든다는 것이었다. 인종관계조사를 통해 미국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교육받은 중국인과 일본인 2세대들을 인터뷰한 결과, 짝은 이들 2세대에게서 미국인들의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 낼 정도로 태도와 성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자 부모세대와 동일한 인종적 표식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태도와 성격을 닮은 중국인과 일본인 2세대가 미국인과 좀 더 쉽게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에 짝은 감명받았다. 미국에서 태어나 대학에 재학 중이던 일본인 여성을 직접 만난 후 짝은 “동양인의 가면 아래서 동양인의 심성을 조금이라도 추적하기 어렵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고백한다. 그는 그녀의 영어에 섞인 “약간의 억양, 몸짓” 등으로 인해 “일본인으로 가장한 미국인 여성의 말을 듣는 것 같은 인상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는 말을 덧붙였다. 일본인 2세대에서 동양인으로서의 외형적인 특징은 사라지지 않지만 심성적 동화는 분명하게 진행된다는 것이다.¹³⁾

소위 “동양인 문제”에 관한 짝의 분석과 전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아시아에서 온 이민자들처럼 인종의 강한 외형적 표식을 가질 경우 미국사회에 수용되고 동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민 일세대는 주류사회와 겪는 갈등으로 인해 나름의 인종 의식을 발전시키게 되

12) Robert E. Park, "Behind Our Masks," *Survey Graphic* 56 (May 1926), p. 137.

13) Robert E. Park, "Behind Our Masks," *Survey Graphic* 56 (May 1926), p. 138.

고 이 역시 이들의 수용과 동화를 힘들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은 중국인과 일본인 자녀들의 경우 동양인의 인종 표식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 미국인이나 다름없다. 짙은 인종이란 결국 눈에 보이는 외형적 “가면(a mask)”에 불과하며 중요한 것은 그 가면 아래에 있는 심성, 문화, 태도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태어난 중국인과 일본인의 3세대, 4세대 후손들도 유럽 이민자의 후손들처럼 인종 관계의 순환의 마지막 단계인 미국사회로의 동화를 경험할 수 있는가? 1924년 이민법으로 아시아 이민의 전면 규제가 시행된 지 2년 후인 1926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짙은 태평양 연안의 중국인과 일본인의 경우에도 인종 관계의 순환 논리는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했다. 짙에 따르면, 19세기 말 중국인에 대해 극심한 혐오를 표현했던 미국인들이 이제는 우호적이며, 1924년 이민법에 대한 비판도 일어나고 있었다. “우리 사회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종관계 속에서 발전한] 개인적 접촉과 우정은 인종 분리의 장벽을 가로지르고 궁극적으로 약화시킨다”라고 짙은 전망했다. 짙은 인종 관계의 순환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여 미국 서부의 동양인 문제를 검토했고 동양인과 미국인 사이의 인종 갈등은 결국 해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동양인의 외형적 표식은 미국인의 반 아시아 정서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동양인의 동화를 촉진하려면 동양인과 미국인 사이의 결혼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었다.¹⁴⁾

14) Robert Park, “Our Racial Frontier on the Pacific,” *Survey Geographic* 56 (May 1926), p.196.

III. 아시아인의 사회적 동화 수단으로서의 인종 간 결혼

1930년대부터 전후시기까지 미국의 지성사회를 지배하던 문화인류학은 과학적 인종주의를 본격적으로 비판했다. 프란츠 보아스같은 대표적인 문화인류학자는 인종의 특질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화인류학자들은 역사상 존재했던 인종들은 대개 혈통적으로 뒤섞인 인종이었다는 점을 들면서 인종의 구별은 혈통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에 기반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로버트 팍은 문화인류학자는 아니었지만 인종이 문화적으로 결정된다는 프란츠 보아스같은 학자들의 주장에 동의했다. 1937년 동료 연구자이던 로만조 애덤스의 <하와이에서의 인종 간 결혼>이라는 저서의 “도입문”에서 팍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종들 중 순수한 인종은 하나도 없다”라고 기술했다. 사후에 출간된 “문화와 문명(Culture and Civilization)”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팍은 “인종의 혼합이 일어나는 곳에서 문화적 적응이 더 빨리 진행된다”는 점에서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종 혼합이 이점을 가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¹⁵⁾

인종 간 결혼에 대한 팍의 관심은 인종관계조사의 연구책임자 직을 수락했던 192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팍이 처음으로 착수한 작업은 인종 간 결혼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당시 미국의 서부와 남부에서 백인과 흑인, 백인과 아시아인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19세기 말 20세기 전반기 백인 미국인들은 생물학적인 이유와 사회적인 이유로 인종 간 결혼을 반대했다. 즉, 백인과 비백인 사이의 인종적 차이는 너무나 커서 인종 간 결혼이 비백인의

15) Robert Park, *Race and Culture*, 17, p.189.

생물학적 동화나 사회적 동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⁶⁾ 1920년대에 들어서 아시아 이민 제한과 인종 간 결혼 금지를 주장하는 논리는 당대에 유행하던 우생학운동의 언어를 본격적으로 차용하기 시작한다. 기존의 논리는 아시아계 민족들이 “열등”하기 때문에 동화와 인종 간 혼합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우생학적 논리에 따르면, 아시아계 민족들이 백인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동화가 어려우며 인종 간 혼합으로도 이 두 “인종” 사이의 차이를 메울 수 없었다. 언론인이자 일본인 이민 제한에 관한 글을 썼던 맥클래치(V.S. McClatchy)는 일본인의 “인종적 열등성”때문이 아니라 일본인과 백인 사이의 “인종적 차이(racial differences)”와 일본민족의 “특색” 때문에 일본인이 “이민자로서나 시민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일본인과 “미국 백인들(American whites)”사이의 차이는 “너무 근본적”이어서 “특색이 너무 다른 두 인종 사이의 혼합결혼은 양쪽 어느 인종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생물학자들이 주장하는 원리의 범위 안에 들어 온다”고 맥클래치는 기술했다.¹⁷⁾

16) 1879년에 중국인 문제 위원회 회장인 존 밀러(John Miller)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동화할 수 없는 인구이며 우리 [백인] 인종의 사람들과 동화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논평했다. 밀러는 또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중국인들이 만약 우리들과 [인종적으로] 혼합하려고(amalgamate) 한다면 이는 우리 인종에게 일어날 가장 천박하고 사악한 일이자 우리 인종의 격을 최저로 떨어지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한 인종혼합의 결과로 가장 경멸스러운 혼성(hybrid, 지구상에서 일어난 것 중 가장 혐오스러운 잡종(mongrel)이 태어날 것이다.” *Debates and Proceedings of the Constitutional Convention of the State of California, 1878-9* (Sacramento: State Office, 1880), 1:632; quoted in Megumi Dick Osumi, “Asians and California’s Anti-Miscegenation Laws,” in Nobuya Tsuchida, ed., *Asian and Pacific American Experiences: Women’s Perspectives* (Asian/Pacific American Learning Resource Center and General College,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apolis, 1982), p.5.

인종 간 결혼을 반대하는 논리에 맞서서 짝은 인종 간 결혼과 생물학적, 사회적 동화 사이의 관계는 실제로 일어난 인종 간 결혼 사례를 연구한 후에야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짝은 인종 간 결혼에 대한 기존 연구가 “미국에서 동양인과 백인 사이에 실제로 일어나는 결혼에 관한 연구를 통해 수정되고 완성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런 맥락에서 짝은 “동양인(Orientals)”과 “백인(whites)” 사이의 결혼에 대한 질문지를 작성할 때 그의 목표를 “인종 간 결혼에 관한 사실들의 확보”라고 규정했다.¹⁸⁾

짝은 인종 간 결혼을 통한 비백인들의 동화가능성 문제를 기본적으로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인종 간 결혼이 어떠한 환경에서 일어나고 인종 간 결혼을 통해 어떤 문화적 특징이 혼혈인들에게 전달되는지는 연구하는 것이 인종 간 결혼 연구에서의 핵심 문제라는 것이었다. 짝은 “인종적 혼성인들”을 “인종집단들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생물학적이며 동시에 문화적인 혼성인들”이라고 정의했다.¹⁹⁾

짝은 인종 혼합의 결과로 인종 소수자의 외형적 특징이 사라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짝은 “메스티조(the mestizo), 물라토(the Mulatto), 혹은 유라시안(the Eurasian)은 그들의 얼굴과 외양에 혼성적 기원들의 표식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혹은 완벽하게 동화되기 힘들 것”이라고 보았다.²⁰⁾ “신체적이고 인종적인 표식들”이 “계급이나 신분의식의 근간”이 되는 한 “인종적 혼성인들(racial hybrids)”은

17) V.S. McClatchy, “Japanese Immigration and Colonization: Brief Prepared for Consideration of the State Department, Sacramento, California, October 1, 1921,” *Four Anti-Japanese Pamphlets* (New York, Arno Press: 1978), pp.41~42.

18) Park, “Intermarriage,” #10, Box 17, SRR.

19) Park, *Ibid.*

20) Park, *Ibid.*

여전히 “구분가능한 신체적 유형”으로 남을 것이라고 짚은 예측했다.²¹⁾ 이런 짚의 입장은 당대의 개혁성향 백인 지식인이자 일본 선교사였던 시드니 굴릭(Sidney Gulick)과는 구별된다. 굴릭은 백인과 아시아인 사이의 인종 혼합이 후자의 전자로의 생물학적 동화를 이끈다고 보았다. 백인과의 결혼을 통한 아시아계 민족의 “생물학적 동화”의 증거로 굴릭은 일본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코카서스인종(Caucasians)과 거의 구분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한다.²²⁾ 굴릭은 인종 간 결혼으로 인해 백인과 비백인 사이의 외형적 차이가 사라지면 인종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가능성에 은근히 기대를 걸었다고 볼 수 있다. 굴릭과 달리 짚은 이런 가능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다.

짚의 관심사는 “동양인-미국인 결혼(Oriental American intermarriage)”과 “인종적 혼성인들”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인종적 혼성인들”과 인종 간 결혼이 공동체에서 수용되는 방식에 관심을 가졌다. 그 이유는 혼혈인에 대한 시각이 특정 사회의 인종관계가 가진 성격을 확인해 주기 때문이었다. 짚이 직접 작성한 “동양인-미국인 인종 간 결혼(Oriental American intermarriage)에 관한 설문지”에 등장하는 질문의 대부분은 아시아계 이민자와 백인여성 사이의 결혼,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자녀들이 백인사회, 아시아계 이민자사회, 혹은 혼합된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관한 것들이었다. 예를 들어 짚은 백인여성의 아시아계 남성과의 결혼이 그녀의 부모, 친구, 백인공동체와 그녀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물어보았다.²³⁾

21) Park, *Race and Culture*, pp.380~381.

22) Sidney Gulick, *The American Japanese Problem: a Study of the Race Relations of the East and the West*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 1914), p.152.

“인종 간 결혼 설문지”에는 결혼 당사자들과 혼혈 자녀의 외형적 특징에 관한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 “동양인과 결혼하는 미국인 여성의 키와 피부색은 어떤가? 이 여성의 외형이 동양인 여성에 가까운 편인가?” “어떤 유형의 동양남성이 미국여성과 결혼하는가? 그는 외양상 미국적인가?” 혼혈자녀에 대해서는 “이 아동들이 미국인으로 통과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아시아 혈통을 가진 결과로 이들이 어떤 물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아시아인의 인종적 표식이 백인과의 결혼을 통해 쉽게 사라지는 않는다는 팍의 인식이 이 질문에 반영되어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²⁴⁾

결국 인종 간 결혼을 통한 아시아인의 동화 가능성은 아시아인과 백인 사이의 결혼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자녀가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수용되는가에 달려 있었다. 이를 추적하기 위해 팍은 질문지에 혼혈자녀의 환경에 대해 상세한 질문을 포함시켰다.

혼혈아동이 얼마나 다른 종류의 공동체에서 살아왔는가? 그리고 이 다른 공동체들의 경험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 a. 그는 주로 어디에서 주로 살았는가?
 - a. 미국인 공동체, b. 동양인 공동체, c. 혼성 공동체
- b. 그의 놀이친구들은 백인 아동, 동양인 아동, 혹은 혼혈인 아동인가?
- c. 혼혈아동이 양쪽 인종집단의 아동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려는 경향을 보이는가? 그렇다면 이 경향은 그 아동의 가족이 다음 중 어디에 거주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가?
 - a. 미국인 공동체 b. 동양인 공동체, c. 혼성 공동체²⁵⁾

23) Park, “Intermarriage.”

24) Ibid.

25) Ibid.

팍은 미국사회의 인종관계 개선을 위해 인종 간 결혼금지법이나 아시아계 이민을 제한하는 법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팍에 따르면, “이민을 권장하는 나라들은 인종 간 혼합(miscegenation)에 대개 관용적이며 인종간 결혼(intermarriage)이 허용되는 곳에서는 인종때문에 생기는 편견(race prejudice)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²⁶⁾ 1924년에 인종관계조사의 연구감독으로서 팍은 서부의 인종 간 결혼금지법이 통과되었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인들이 미국에서 백인과 결혼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면, 일본인들이 미국에 있는 동안 우리는 인종 문제(race problem)를 계속 안고 살게 될 것”이라고 팍은 예측했다.²⁷⁾

인종 간 결혼에 대한 반대와 아시아계 이민제한이 백인들 사이에서 압도적으로 당연시되던 시절에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사회적인 동화가 가능하며 백인과의 결혼이 그 가능성을 더 높여줄 수도 있다는 팍의 주장은 20세기 초반에는 매우 혁신적인 주장이었다. 팍은 백인과 아시아계 미국인 사이의 결혼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백인과 아시아인의 결혼이 문화적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미국의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1920년대에 이미 예언한 것이다. 1945년 이후 미국에서는 인종 간 결혼에 대한 사회적 금기가 깨지기 시작했다. 1967년에는 인종 간 결혼 금지법에 대한 위헌판결이 내려졌고 1965년 이후 아시아 이민의 문이 다시 열리면서 아시아인과 백인 사이의 결혼은 미국 내 인종 간 결혼의 대표적 형태로 자리 잡는다.²⁸⁾

26) 2Park, *Race and Culture*, pp.193~194.

27) Letter from Park to Davis, April 29, 1924, #7, Box 11, SRR.

28) 인종간 결혼 금지의 역사를 다룬 대표적 저서들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Katherine Ellinghaus, *Taking Assimilation to Heart: Marriages of White Women and Indigenous Men i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1887-1937* (Lincoln, Nebr.: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06); Martha Hodes,

IV. 나가며: 로버트 팍과 인종관계조사가 남긴 유산

팍의 인종관계조사가 미국사회와 아시아계 미국인 사회에 남긴 유산을 평가하려면 먼저 인종관계조사의 토대가 된 그의 인종관계순환이론이 후대의 인종관계 연구에 미친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로버트 블라우너 (Robert Blauner)에 따르면, 팍의 인종관계 순환론은 미국 사회에서 인종의 성격에 관한 다음의 가정들을 형성했다. 첫째, “인종과 민족 집단들은 근대 사회에서 중심적이지도 지속적이지도 않다.” 둘째, “인종주의와 인종 억압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힘은 아니지만 다른 결정요소, 대개 경제적이거나 심리적인 요소에 의해 우발적으로 환원될 수 있다.” 셋째, “인종주의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미국인의 태도와 편견이라는 입장”이다.²⁹⁾

블라우너가 열거한 위의 가정들은 아시아인과 백인 미국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팍의 접근 방식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팍은 미국 서부의 “동양인 문제”나 미국 내 다른 “인종 문제”의 본질이 심리적인 것에 있다고 보았다. “동양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것은 “동양인”과 미국인의 잦은 접촉을 통한 태도의 변화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양인”의 외

White Women, Black Men: Illicit Sex in the 19th-Century South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97); Peggy Pascoe, *What Comes Naturally: Miscegenation Law and the Making of Race in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Charles Frank Robinson II, *Dangerous Liaisons: Sex and Love in the Segregated South* (Fayetteville, Ark.: University of Arkansas Press, 2003).

29) Robert Blauner, *Racial Oppression in America* (New York: Harper & Row, 1972), p.2, quoted in Omi and Winant, *Racial 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p.10.

형적 특징만 보고 그 안에 있는 미국인을 보지 못하는 백인 미국인이 스스로 인종적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팍에 의하면 백인 사회의 인종주의 탈피가 아시아인의 동화에서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다.

마이클 오미(Michael Omi)와 하워드 위난트(Howard Winant)에 따르면, 팍의 인종관계순환이론은 인종관계의 순환을 “역사 발전의 법칙으로 상징”했다. 이 법칙은 곧 “집단 관계를 분석하고 고정된 연속적이고 점진적 변화 선상에 ‘소수자’ 집단의 진보를 평가하는 방법”이었다. 오미와 위난트는 팍의 개념으로부터 인종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인식이 시작되었다고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팍에서 시작된 인종 및 인종관계에 대한 가정들은 미국의 인종주의를 개인적 편견의 차원으로 축소시켰기도 했다. “[팍과 후대 사회학자들의 인종에 대한] 가정들은 미국에서 인종이 가지는 제도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무시했고 교육, 예술, 사회정책, 법, 종교, 그리고 과학같은 사회적 영역에서 인종 역학(racial dynamics)이 체계적으로 존재한다는 점도 간과했다. 그 대신에 이들의 가정들은 개개인의 병적인 태도에서 나온 비이성의 산물로서 인종 역학을 강조한다.”³⁰⁾

오미와 위난트의 지적처럼, 팍과 당대의 미국 사회학자들은 “동양인 문제”에서 “감정과 심적 요소”를 강조했다. 팍은 미국인들의 소수자에 대한 “인종 편견”이 극복된다면 “인종 문제”도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오미와 위난트의 비판을 적용하자면, 인종이 사회적 제도와 기관을 구성하는 인식 체계로 작용하고 있음을 팍은 보지 못했던 것이다. 적어도 인종관계조사에 착수하던 1920년대 당시 팍은 흑인과 아시아인의 인종적 표식이 이들에 대한 차별의 원인이라는 점을 인지하고는 있었다.

30) Michael Omi and Howard Winant, *Racial 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From the 1960s to the 1990s*, 2nd Ed. (New York: Routledge, 1994), p.10.

하지만 팍은 곧 백인의 인종주의의 원인을 백인의 심리에서 찾았다. 즉, 외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낯선 아시아인을 볼 때 백인들이 느끼는 불편한 심리에서 인종 편견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인종적 차이를 심리적 차원의 문제, 궁극적으로는 문화와 태도의 차이로 보려는 팍의 입장은 인종관계조사 이후에도 지속된다.

1920년대 말과 1930년대에 그는 하와이 대학, 북경의 옌칭대학, 자바, 인도를 방문해 동양의 문화를 직접 접촉할 수 있었다. 1930년대에 그가 남긴 글에서는 동양과 서양의 차이는 더 이상 인종적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문화적 차이의 문제들”이라는 논문은 1931년에 그가 중국 홍차우의 태평양관계연구소에서 발표한 글이다. 이 논문에서는 인종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여기서 팍은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문화(culture)”와 “태도(attitudes)”의 차이라고 상정한다. “동양의 영혼은 고요함이라고들 한다. 서양의 천재스러움은 행동이다. 변화하지 않는 동양은 행동하는 서양과 대척점에 서있다.” 팍은 중국의 예를 들어 동양문명의 일반적인 특징을 정의한다. “중국과 동양 문명은 대개 가족에 기반한다. 가족에 기원을 두고 가족으로부터 삶의 철학을 구성하는 생각들이 나온다. 이 생각들은 동양의 다변적이지만 밀접하게 통합된 문화들의 통일성을 유지시킨다.” 동양과 대비되는 서양문명의 특징을 팍은 다음과 같이 일반화한다. “서양, 특히 현대 미국에서 문화는 사람들이 모여 중재와 거래를 하는 시장에서 기원한다. ...시장에서 일어나는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은 개인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밖에도 “낭만적 결혼”과 “진보” 등이 “서양 사람들의 삶과 제도에 영향력을 행사”한다.³¹⁾

동양문명이 가족, 통일성, 조화를 추구한다는 팍의 인식은 제 2차 세계대전 시기 이후에 등장한 아시아인에 대한 긍정적 전향과도 연관이 있

31) Park, *Race and Culture*, pp.9, 13~14.

다. 세계대전과 냉전의 주도국이던 미국은 아시아에 대한 지구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아시아인을 미국에 대한 “황화(yellow peril)”로 보던 시절과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었다.³²⁾ 그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모범적 소수자(model minority)”라는 아시아인에 대한 새로운 전형이었다. 역사가 엘렌 우에 따르면 전후 모범적 소수자라는 전형을 대표하는 중국인과 일본인들은 “동양인”의 특징이라고 상정되는 성향들, 즉, “조화와 수용을 지향하기, 가족과 교육에 대한 경외” 등을 갖추고 있었다.³³⁾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사회에서 아시아인을 “모범적 소수자(model minority)”로 명명되며 다양한 차원에서 수용과 포함을 경험했다.³⁴⁾ 전후의 이런 상황은 미국사회의 아시아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아시아인의 동화의 조건으로 상정했던 팍의 가설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모범적 소수자”로서 아시아인은 동화 대상으로 고려될 만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백인의 인종적 타자로 남는다. “모범적 소수자”의 전형은 아시아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지만 여전히 주류집단에 의한 소수 인종의 전형화에 불과하다. 그리고 백인 사회의 전반적 태도 변화가 반드시 개별 백인의 아시아인이나 다른 소수 인종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유발하는 것도 아니다. “모범적 소수자”라는 전형은 아시아계 미국인 집단의 다양성을 무시하기도 하지만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인종소수자로서 경험

32)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인종 차별 역사와 관행은 전세계적으로 지탄 대상이 되었다. 이제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연방정부는 인종주의 비판에 기민하게 반응해 소위 “피부색을 구분하지 않는 정신(color-blindness)”을 공식적으로 지향했고 1950-60년대에 민권 운동의 요구들을 법으로 수용했다. 관련된 논의로 다음을 참고하라. Mary L. Dudziak, *Cold War Civil Rights: Race and the Image of American Democr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33) Wu, *The Color of Success*, p.5.

34) Madeline Y. Hsu, *The Good Immigrants: How the Yellow Peril became the Model Minor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5).

하는 일상적 차별을 비가시화하기도 한다.

인종 갈등을 해결하는 데 주류집단 백인들의 감정, 태도, 여론 변화가 중시한 팍의 입장은 전후 미국 사회에서 새로운 방식의 아시아인의 인종적 타자화로 이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입장이 가지는 당대적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1924년의 상황은 달랐다. 캘리포니아의 반 아시아 운동이 인종을 이유로 아시아 이민을 전면 제한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했고 이로 인해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이민 제한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팍이 “동양인 문제”의 해결책으로 백인 사회의 태도 변화를 다른 것보다 중요하게 여겼을 가능성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2018.10.21 투고 / 2018.11.21 심사완료 / 2018.11.21 게재확정)

[Abstract]

Making Asian Migrants as the Subject of Social Research:

Robert E. Park and the Survey of Race Relations, 1924–1927

Kwon, Eun-hye

This article examines the way in which Robert Park, one of the founders of the Chicago Sociology in the early 20th century spearheaded a social-scientific approach to Asian migration and assimilation primarily in the Survey of Race Relations, 1924–1927. Park applied his theory of race-relations cycle to Asian immigrants. According to him, Asians shared the non-white racial identity with American blacks. Asians were deemed similar to European immigrants in terms of their social status as immigrants. Park was particularly interested in marriages between Asians and whites as a way of assimilating Asians and, eventually, solving the tensions between white Americans and Asian immigrants at the time.

□ Keyword

Robert Park, Chicago Sociology, Survey of Race Relations, Asian Immigration, Interracial Marriage

[참고문헌]

1. 1차 사료

Survey of Race Relations, 1924–1927, Hoover Institution Archives, Stanford University, <https://searchworks.stanford.edu/view/4088089> [2018년 10월 20일 검색].

Gulick, Sidney. *The American Japanese Problem: a Study of the Race Relations of the East and the West*.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 1914.

McClatchy, V.S. "Japanese Immigration and Colonization: Brief Prepared for Consideration of the State Department, Sacramento, California, October 1, 1921," *Four Anti-Japanese Pamphlets*. New York, Arno Press: 1978.

Park, Robert E. "A Race Relations Survey: Suggestions for a Study of the Oriental Population of the Pacific Coast," *Journal of Applied Sociology* Vol. VIII (March–April 1924), pp.195–196.

Park, Robert E. "Behind Our Masks," *Survey Graphic* 56 (May 1926), pp.135–139.

Park, Robert E. "Our Racial Frontier on the Pacific," *Survey Geographic* 56 (May 1926), pp.192–196.

Park, Robert E. *Race and Culture*. Glencoe, Ill., Free Press: 1950.

2. 2차 사료

Blauner, Robert. *Racial Oppression in America*. New York: Harper & Row, 1972.

Dudziak, Mary L. *Cold War Civil Rights: Race and the Image of*

- American Democracy* .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 Ellinghaus, Katherine. *Taking Assimilation to Heart: Marriages of White Women and Indigenous Men i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1887–1937*. Lincoln, Nebr.: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06.
- Hodes, Martha. *White Women, Black Men: Illicit Sex in the 19th–Century South*.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97.
- Hsu, Madeline Y. *The Good Immigrants: How the Yellow Peril became the Model Minor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5.
- Omi, Michael and Howard Winant, *Racial 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From the 1960s to the 1990s*, 2nd Ed. New York: Routledge, 1994.
- Osumi, Megumi Dick, “Asians and California’s Anti–Miscegenation Laws,” in Nobuya Tsuchida, ed., *Asian and Pacific American Experiences: Women’s Perspectives*. Asian/Pacific American Learning Resource Center and General College,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apolis, 1982. pp.1–37.
- Pascoe, Peggy. *What Comes Naturally: Miscegenation Law and the Making of Race in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Rauschenbush, Winifred. *Robert E. Park: Biography of a Sociologist*.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1979.
- Robinson II, Charles Frank. *Dangerous Liaisons: Sex and Love in*

the Segregated South. Fayetteville, Ark.: University of Arkansas Press, 2003.

Wu, Ellen D. *The Color of Success: Asian Americans and the Origins of the Model Minori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Yu, Henry. *Thinking Orientals: Migration, Contact, and Exoticism in Modern Americ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